



가격 폭락으로 9일 오전 나주배 경매가 일시 중단되면서 나주배 공판장 옆 주차장까지 배 상자들이 줄지어 쌓여 있다.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나주배 재배농민들은 올해 가격 폭락으로 500억원대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배 가격 대폭락 '추석 쇼크'

지난해 절반값... 수백억 손실 불보듯 구매자 없어 경매 중단 초유의 사태도

나주 배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구매자마저 없어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농가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나주지역의 배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18%를 점유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나주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나주배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15kg당 1상자(16~20과)에 3만8천원

이던 배 가격이 8일에는 2만 원 미만으로 폭락했으며 9일 오전 한때 구매자가 없어 경매가 중단됐다.

나주배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매를 시작했으나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없어 가격 형성이 안돼 경매를 중단했다. 30분 뒤 경매가 재개했으나 급락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 4만~4만5천 원에 출하됐던 것에 비해 무려 50%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던 나주배 재배 농민들이 올해 수백 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생산 물량의 70%가 소화되는 추석을 앞두고 가격 폭락으로 경매까지 중단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농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나주 배 가격 폭락은 전국적으로 배 생산이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는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예년에 비해 추석이 한 달가량 빨라 과일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 이후 집중 출하가 이어져 가격 폭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배 재배 농민인 김모 (61·나주시 금천면)씨는 "갑자기 가격이 폭락해

눈 앞이 캄캄하다"며 "앞으로 가격이 더욱 폭락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 설 때 판매를 위해 저장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농사를 포기하고 싶다"고 한숨지었다.

농민들은 추석 판매가 마무리되는 9일 이후 가격이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할값에도 판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주배조합 관계자는 "예년 판매 물량의 30% 정도밖에 출하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가격이 폭락해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감소가 가격 폭락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김정일 뇌졸중 가능성"

AP통신 보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뇌졸중(stroke)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AP 통신 등이 미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6면>

익명을 요구한 이 정보당국자는 "김 위원장에게 건강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아마도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은 최근 2주 이내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일단 지금까지 북한의 통치능력에는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통치 능력이 있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습스

"경제 파탄 절대없다"

이대통령, 대통령과 대화서 밝혀 "불교는 물론 국민통합 노력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9월 경제위기와 관련, "결론적으로 말하면 IMF 위기 같은 것을 맞아 경제 파탄이 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5면>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전국에 100분간 TV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서 패널리들의 질문을 받고 "위기는 전혀 없고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가 잘 대처하고 경제 주체인 기업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금융위기의 한 축인 환율 불안정에 대해 "고환율 정책을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환율 정책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향에서 벗어났으며 지금은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정부의 적극 개입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또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겠다"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방향을 거듭 밝힌 뒤 "필요하다면 다소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정부가 분양을 하면 주택을 훨씬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가 정책에 대해선 "전기, 가스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안 주려고 값을 올리지 않았으나 추석이 지나면 조정할 것이나 15-20% 올릴 생각은 없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억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오전에 불교에 대한, 종교편향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 했고,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밤 KBS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 출연해 국민 패널리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스

시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 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할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의 불찰이다"고 거듭 종교편향 배제 원칙을 피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역시·도 폐지 행정구역 개편

찬성 66%·반대 23%

광주·전남 의원 등 설문

'현행 광역시·도를 없애고 전국 기초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과 관련, 광주와 전남지역 정치권 인사 가운데 66.3%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9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시·도 의회 의원, 시·군·구의회 의장 등 123 당국자는 또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은 최근 2주 이내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일단 지금까지 북한의 통치능력에는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통치 능력이 있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습스

조사 결과 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입장을 유보한 3명을 제외하고 17명(85%)이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했으며, 광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박 지사는 "서로 다른 역사·문화 화를 가진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묶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 우려"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장 중 4명이 "광역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 가운데 10명(응답자의 55.5%)이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했고 반대는 6명, 입장 유보 2명, 무응답 4명 등으로 조사됐다.

■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치권 찬반

광역 기초단체장 (응답자 9명)	총	찬성	반대	유보
총	24	14	7	3

국회의원

총	찬성	반대	유보
20	17	0	3

광역시의원

총	찬성	반대	유보
16	12	3	1

전남도의원

총	찬성	반대	유보
35	23	5	7

반대 입장은 '지역간 갈등유발', '영세 자치단체 소외' 등을 이유로 꼽았다. 광주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가운데 12명(응답자의 75%)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3명, 입장 유보는 1명, 2명은 해의출장 중이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51명 가운데 35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박인환 의장을 비롯 23명(65.7%)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는 14.3%인 5명에 그쳤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최고의 피부 케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IOPE